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마 21:1-11)

At the Time of Entry into Jerusalem

(Matt. 21:1-11)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시간이 임박했을 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담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 벳바게에 이르시어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지금까지 400km가 넘는 길을 걸어 오셨고 예루살렘까지는 고작 2km가 남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은 성경의 정점이고 인류역사의 정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뢰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절대주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주간이었으므로 1년 중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성에 운집할 때입니다. 엄청난 무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8-9절).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유대인들과 로마군사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거룩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영혼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때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때인 동시에 영혼이 구원 받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의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우리 주님께는 가장 기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다면,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became a lamb of God to take away the sin of mankind. And when Jesus bled to death on the cross was imminent, the text included Jesus' feeling in His heart can be very meaningful for us.

Before Jesus enter Jerusalem, He came to the village Bethphage near Jerusalem, and sent two disciples on errand to go to the village ahead of them and to get a donkey. They walked more than 400 km straight and 2 km left for Jerusalem. However, all of a sudden, why was he going to ride on a donkey? It was the right time to come. The time when Jesus Christ would bleed to death on the cross to take away the sin of mankind was imminent. The time when Jesus takes up the cross is the peak of the Bible and the peak of mankind's history.

It was the right time to come true. The most important and the right time in the midst of God's work of the greatest salvation approached. It started the time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as the eternal king.

The reason why he said, that His two disciples should bring donkeys, "gentle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is in order to accomplish God's word.

Jesus told his disciples to bring donkeys, 'If anyone says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This word means the royal authority of Jesus Christ who has absolute sovereignty. The owner of donkey without saying anything gave his donkeys, and Jesus rode donkeys and entered Jerusalem.

At that time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it was the time when there were the highest many Jewish people in the year who came to the temple of Jerusalem. A great number followed Jesus and shouted, "Hosa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a in the highest!" (vv. 8-9)

Our Jesus who entered Jerusalem would be handed over to the hands of Jews and Roman soldiers and would be crucified to death. It was just the time when we should be saved. Nothing was better than any other important, holy, and wonderful time.

Our Jesus just came to the world to save us. And the time when the Bible says means that the work of Jesus has just accomplished, at the s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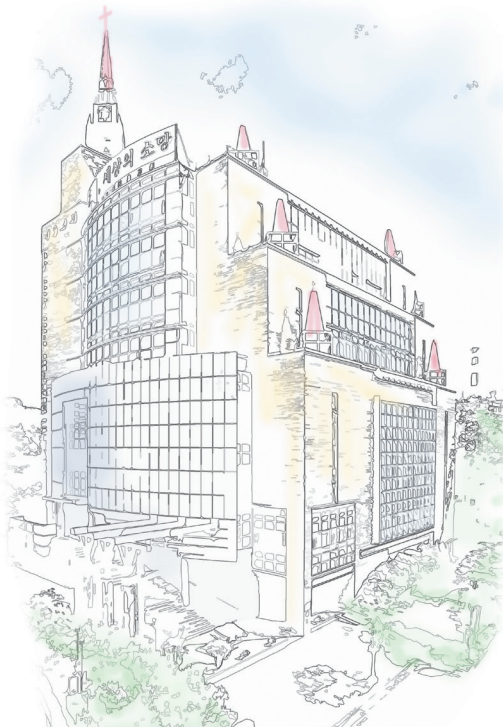
time our soul has been saved.

Jesus found a woman who lived in Samaria called Sychar. Though she got married five times to be happy, finally she was mocked by people and became lonely. She secretly came to draw water at the well during a time when there was nobody. Later, she would be saved with Jesus' talk. Like this, the time when the lost soul came to Jesus is the happiest for Jesus.

My beloved Christians,

If we welcome Jesus Christ' entry into Jerusalem, and we love and long for him who will die right away, we must strive to save a soul that Jesus is so happy to forgive.

In order that a number of the lost soul may come back to the Lord and be saved,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used as a work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

범위 : 여호수아~열왕기하, 마태복음

1월 15일(목)~16일(금) / 오전 9:30~오후 5:00

2015년을 맞아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를 1월 15일(목)~16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성경통독범위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가 바란다.

2015년 전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 1월 14일(수) / 수여식 : 2월 1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전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지난 주일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1월 14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5년부터는 제출서류에 **재정상태확인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발토록 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5년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 교회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마5:3-12) -

영어예배부 1월 16일(금)~17일(토) / 디아스포라부 1월 17일(토)

2015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1월 16일(금)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열린다. 모든 교육부서 담당자 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되도록 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중등부	1.22(목)~1.24(토)	아가페타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박노철 목사 /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청년1부	2.12(목)~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마6:10)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사랑부	2.15(주일)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7(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박노철 목사 /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	1.17(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디아스포라부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1.16(금)~17(토)	아가페타운	FELLOWSHIP IN CHRIST	김다니엘 목사

2015년 비전2020 후원자의 밤

1월 18일(주)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우리교회는 “비전2020운동(본부장 : 최광성 장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1월 18일(주)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갖는다. 후원자의 밤 행사에는 해병대사령부 중앙교회,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육군 3사단, 20사단, 23사단, 해병대교육훈련단 교회 장병들과 우리 교회 파송 군선교사 6명 등이 참석한다.(총 88명 참석 예정)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원로장로 추대식

-윤봉준 은퇴장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21년 동안 사무장으로 섬겨오다 은퇴한 윤봉준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윤장로의원로장로 추대안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1월 4일 (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5년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이 훈(1) 정현구(1) 김철진(2) 이옥수(0.5) 1-11 다락방(0.5) 김선자(0.5) 김정애(1) 이동만(0.5) 이민희(0.5) 이준호3(0.5) 박미현4(1) 김영주(0.5) 김광민(1) 김지숙(0.5) 김혜연(1) 황병석(0.5) 한혜경(1) 이현주(1) 김재근(1) 박종권(1) 이영기(1) 최광성(1) 최지욱(1) 임상현(1) 박봉진(1) 주동재(1) 김지수(0.5) 김주엽(1) 정진문(1) 최원석(0.5) 최향봉(0.5) 김선석(1) 성백우(1) 이순형(1) 김선태(1) 이 호(1) 박정자(1) 노종렬(0.5) 신용식(1) 신영신(1) 최근배(0.5) 이광배(5) 황난옥(1) 임흥수(1) 노제현(1) 하극수(1) 김이세(1) 이원일(0.5) 베드로남선교회(1) 리브가여전도회(1) 도르가여전도회(1) 마리아여전도회(2) 제2권사회(2) (다음주 계속)

2015년 비전2020 후원자

장인원(2) 이 훈(5) 박건우(2) 한진수(2) 이옥수(1) 전용식(1) 유선희(1) 이준호3(1) 이민희(2) 이동만(1) 김영주(1) 서양지(1) 김관규(2) 오현상(2) 김광민(1) 민정이(1) 윤복순(1) 유명석(1) 김지숙(1) 김유경(2) 홍광숙(2) 전정숙(1) 박희석(3) 김혜연(1) 이광열(1) 김복희(1) 황병석(1) 이용식(1) 김희진(1) 민순구(1) 이덕빈(1) 이현주(5) 이영기(1) 한혜경(2) 오영자(1) 안상준(1) 임운자(1) 강애자(1) 전용순(1) 손혜인(1) 손종근(2) 손정우(1) 김진숙(1) 이부자(1) 이상애(1) 김재근(5) 박화실(1) 박종권(1) 박광수(1) 최광성(5) 최지욱(5) 임상현(5) 박하나(1) 이성우(1) 박명석(1) 박정섭(1) 민의량(1) 방효철(1) 연현준(1) 최원석(1) 주동재(1) 김지수12(1) 김가순(1) 최향봉(1) 김 휘(1) 정윤정(1) 서은석(1) 김선태(3) 이순형(5) 박정자(2) 이 호(2) 이미숙(2) 이광배(10) 노종렬(5) 황난옥(1) 신용식(1) 최근배(5) 노제현(3) 정복순(1) 하극수(2) 이원일(2) 임흥수(1) 임흥수(1) 리브가전도회(3) 제 2 권사회(5) (다음주 계속)

2015년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문창희(2) 이 훈(1) 박건우(1) 김윤숙(0.5) 이옥수(0.5) 박건우(0.5) 한진수(0.5) 정승자(1) 한상민(2) 주차흠(1) 이민희(1) 이동만(0.5) 서선옥(1) 김영주(0.5) 박미권(1) 김광규(1) 김지숙(0.5) 김광민(1) 황병석(0.5) 이현주(1) 한혜경(1) 이영기(2) 손정우(0.5) 손혜인(0.5) 최봉애(0.5) 손종근(1) 김재근(1) 박종권(1) 박광수(0.5) 임상현(1) 박화실(0.5) 박정섭(0.5) 이효민(2) 김가순(0.5) 연지은(1) 최향봉(0.5) 채혜숙(1) 박 옥(1) 김용애(0.5) 김지수12(1) 서은석(1) 주동재(1) 정윤재(1) 정지예(1) 민의량(0.5) 성백우(1) 이순형(1) 정국주(1) 박정자(1) 김선태(1) 황난옥(1) 신영신(1) 이미혜(1) 신용식(1) 노종렬(1) 김태수(1) 이광배(5) 최근배(0.5) 이원일(0.5) 임흥수(1) 김이세(1) 박창호(1) 리브가전도회(1) 도르가전도회(1) (다음주 계속)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아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seoulch@hanmail.net
- 문의전화 : 02-558-1106, 02-2193-8811
- 담당: 송미라 권사



기도와 준비가 절실한 이유

- UN 안보리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즈음하여 -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절대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수백 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도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겨진 참상과 인권유린의 내용을 읽노라면,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의 UN 안보리 회의장.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우리나라 오준 주UN 대사가 발언자로 나서서 한 이 말은 일순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일부 대표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발언이 끝난 오 대사에 포옹을 청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들은 가장 강력한 발언'이란 극찬도 나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권고까지 담고 있다. 여기에 오 대사의 감동적인 호소까지 공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낙관하긴 어렵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앞으로 3년간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실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설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할 볼 것이 있다.



서울교회는 1999년 4월 16일 탈북민들의 난민신청을 UN에 청원하는 '천만 명 서명운동'을 발대하고 전개하여 2001년 4월 27일 '서명 1000만명을 돌파 감사예배 및 UN청원 대표단 파송식'을 가진 바 있다.

첫째,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 야지 단순한 인권 개선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는 점이다. 만일 폭압적 정치체제 아래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은 게 바램의 전부라면, 이는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자선활동과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나라들과 국제기구를 더 의지하고 있진 않는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바쁜 국제 사회의 속성상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기구가 완전히 해결해 줄 가능성은 많지 않

다. 인권 개선을 포함한 북한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유엔 같은 국제 기구가 이를 해주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기도와 준비는 과연 잘 하고 있는가?

필자가 중국의 어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에게 한반도 통일에 관해 물었더니, 대뜸 이렇게 반문한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통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국양제(一國兩制)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직접 통치 방식입니까? 직접 통치라면, 한국인들이 그걸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물론, 미래의 조국이 통일된 한반도이길 원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점진적인 일국양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접통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물질을 모아둔 것이 있는가? 때가 됐을 때 통일에 헌신할 준비를 해놓았는가? 하다못해, 남한에 먼저 온 2만명의 탈북자들이 잘 정착하도록 보살펴 왔는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정작 준비한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오 대사의 UN에서의 발언처럼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기도하며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김민철 집사 (편집부)

[김민철 집사는 현재 한국언론재단 지원으로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1년간 연수중에 있다. - 편집자 주]



2015년 1월 5일 우리교회에서 열린 '제 191회 북한구원 기도회'



故 조명녀 권사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어머니는 해방된 이듬해 월남하시어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내 디신 후 93세가 되도록 믿음의 삶을 이어 가셨습니다. 6. 25전쟁과 힘들고 어려운 살림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신 것을 누구보다 딸자인 저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달라는 기도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위해 간구 하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권찰로, 집사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과 감사함으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추위가 조금씩 강도를 더해가던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기까지 어머니는 1시간30분이 넘는 거리의 교회를 버스를 갈아타며 주일 예배와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고 충성하신 모습은 늘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우리 형제들은 이런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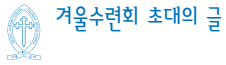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던 20일 동안도 끊임없이 찬양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부족함 전혀 없다고 고백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입술을 읊조리며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 되라, 성령으로 하나 되라, 기도로 하나되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며 자녀 된 우리에게도 천국의 산 소망 안에서 어머니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믿음의 유산을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겠습니다. 어머니, 벌써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전원순 권사(12교구)



주간에서 하나 됨의 기쁨



이영숙 권사
(영어예배부 부장)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영어예배부(English Ministry)는 1월 16일(금)부터 17일(토) 양일간 아가페타운에서 겨울 수련회를(Winter Retreat)를 갖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이노니아”(koinonia)란 주제로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바쁘게 소화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느슨함과 자유함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어예배부는 피부색깔도 언어도 문화도 각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유학생, 비즈니스맨,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등 이 땅을 찾아 온 목적도 각각입니다. 주일날 잠깐 만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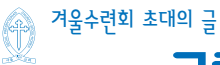
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남의 우연은 없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연이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엮어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또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사하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애통해 하며 주간에서 하나 됨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한 몽골 청년이 조용히 다가와 수줍게 미소를 띄며 "우리 엄마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이내 이 엄마란 말속에는 많은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

※ 평소 영어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께도 수련회는 열려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10-9358-5237).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지성철 집사
(디아스포라부 부장)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는 자유를 갈망하여 사선을 넘어 이 땅에 새 등지를 마련한 형제, 자매들의 신앙공동체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북한 복음화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 부서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금년 서울교회 표어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이갑진 장로님의 “내게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비롯하여 찬양과 간증 등 학생이 주도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프로그램과 체육행사로 진행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 성도님들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에 찾 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일 시간표가 가까이 임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부는 2015년 겨울수련회를 1월17일(토) 10시에 교회(903호)에서 “그리스도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월14일(수) 한국로잔위 정기총회에서 설교한다. 서울노회 교회연합제적수련회 강의한다.

■ 이동만 장로는 제1회 명동 수재양복전시 및 발표회를 갖는다. 장소: 국회 회관 2층 1월12(월)-13(화)

■ 특담: 9교구 김동준 성도 이신해 성도(이강진 장로 승미령 권사의 장녀 가정)

■ 주일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1.11) 도르가전도회(1.18)

■ 금주의 식사 제공: 박희서 집사 김미자 권사 가정 강승일 집사 김우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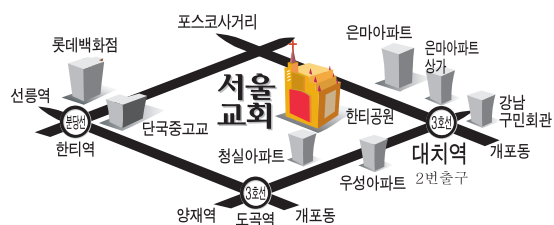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15일과 16일에 있는 성경통독대회에 온 가족이 다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2. 16일-17일에 있는 영어예배부 겨울수련회와 17일에 있는 디아스포라부 수련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3. 2015년 농어촌100교회, 비전2020운동, 한가정한 선교사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귀한 사역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